

최근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분석

정 성 미*

I. 문제 제기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가 넘는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즉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며, 주로 집안에서 가사를 맡고 있는 가정주부를 비롯하여 학생, 연로자와 불구자, 각종 불로소득자, 그리고 자발적으로 종교단체나 자선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최근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동반하락과 동시에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인구에 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시장적 상황으로 인해 경제활동상태로의 진입을 포기하였거나, 고학력화로 인한 긴 구직기간 및 불안정한 취업을 경험한 뒤 다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계층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왜 문제가 되며 어떤 계층에서 증가하는지, 또 어떤 사유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인구학적 특성을 남성중년층, 여성, 청년 및 학력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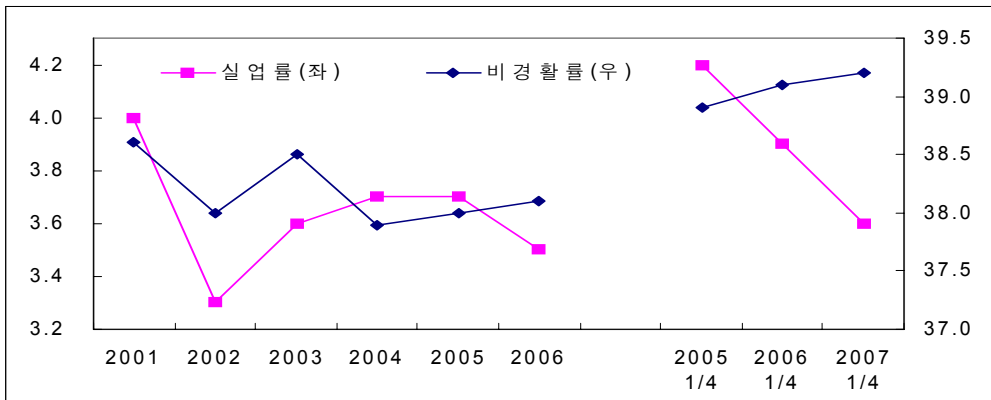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smjung@kli.re.kr).

II. 비경제활동인구 현황분석

2006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4,784천 명으로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38.1%에 해당한다.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력의 유향화의 문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보여지는 고용동향 지표에서 고용률의 정체와 실업률의 급격한 하락은 노동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보다 비경제활동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그림 1]은 최근 3년간 실업률의 하락과 비경제활동률 증가가 동시에 전개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자리 창출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2006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비경제활동률이 증가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최근 3년간 1/4분기 실업률은 급격히 감소하지만, 비경제활동률은 증가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림 1] 실업률과 비경제활동률의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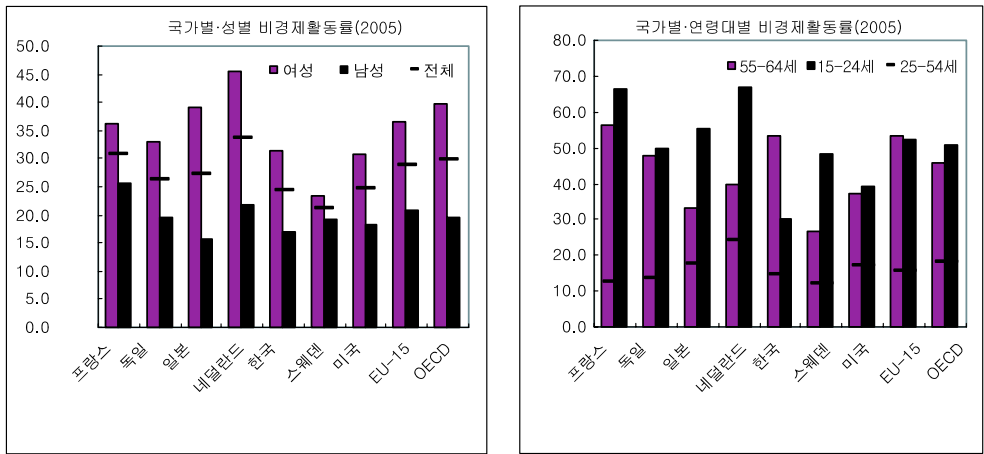


주 : 비경제활동률=비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비경제활동인구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그림 2 참조). 특히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높으며, 청년층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긴 교육년수 및 취업준비기간 등으로 인하여 비경제활동률이 높고, 노동 핵심연령인 30~54세의 중장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도 OECD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높은 편이다.

[그림 2] 주요 국가의 성별·연령별 비경제활동률



자료: OECD(2006), OECD Employment Outlook.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을 위해 학원·직업훈련기관에 다니거나 개별적인 취업 준비를 한다고 응답한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2006년 525천 명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3.6%이며, 특별한 활동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유휴 비경제활동인구’는 1,277천 명으로 8.6%에 이른다(표 1 참조). 이들 취업준비 및 유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1/4분기에도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6 1/4	2007 1/4
취업자	22,139	22,557	22,856	23,151	22,577	22,841
실업자	818	860	887	827	915	851
비경제활동인구	14,383 (100.0)	14,300 (100.0)	14,557 (100.0)	14,784 (100.0)	15,101 (100.0)	15,305 (100.0)
육아·가사	6,658 (46.3)	6,723 (47.0)	6,726 (46.2)	6,773 (45.8)	6,989 (46.3)	7,053 (46.1)
통학	3,908 (27.2)	3,742 (26.2)	3,736 (25.7)	3,904 (26.4)	3,770 (25.0)	3,968 (25.9)
취업준비	345 (2.4)	383 (2.7)	456 (3.1)	525 (3.6)	492 (3.3)	530 (3.5)
유휴	907 (6.3)	1,033 (7.2)	1,238 (8.5)	1,277 (8.6)	1,461 (9.7)	1,484 (9.7)
기타	2,566 (17.8)	2,419 (16.9)	2,400 (16.5)	2,304 (15.6)	2,389 (15.8)	2,270 (14.8)

주: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과 ‘취업준비’ 임.
유휴는 ‘그냥 쉬’ 임.

()안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표 2>의 인구학적 특성별 취업준비 및 유휴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청년층이 7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활동 없이 그냥 쉬다고 응답한 유휴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80.9%에 이른다. 특히 핵심노동계층인 30~54세와 55~64세의 남성 중장년층이 53.7%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성별·연령계층별·학력별 취업준비 및 유휴 비경제활동인구 구성

(단위: 천 명, %)

		취업준비		유 휴	
		2003	2006	2003	2006
남 자	15-29세	137 (39.8)	213 (40.6)	142 (15.7)	152 (11.9)
	30-54세	53 (15.3)	79 (15.0)	289 (31.9)	353 (27.6)
	55-64세	3 (0.7)	2 (0.3)	225 (24.8)	333 (26.1)
	65세이상	0 (0.0)	0 (0.0)	90 (9.9)	195 (15.3)
	소계	193 (55.8)	294 (56.0)	746 (82.3)	1,033 (80.9)
여 자	15-29세	130 (37.8)	200 (38.0)	82 (9.1)	106 (8.3)
	30-54세	22 (6.3)	31 (5.8)	48 (5.3)	68 (5.3)
	55-64세	0 (0.1)	1 (0.1)	16 (1.7)	31 (2.4)
	65세이상	0 (0.0)	0 (0.0)	15 (1.6)	40 (3.1)
	소계	152 (44.2)	231 (44.0)	161 (17.7)	245 (19.1)
고졸이하	15-29세	122 (35.5)	150 (28.5)	181 (19.9)	195 (15.3)
	30-54세	27 (7.8)	32 (6.2)	270 (29.7)	328 (25.7)
	55-64세	2 (0.6)	2 (0.3)	204 (22.5)	307 (24.1)
	65세이상	0 (0.0)	0 (0.0)	92 (10.2)	200 (15.7)
	소계	151 (43.9)	184 (35.1)	747 (82.3)	1,031 (80.7)
전문대졸	15-29세	47 (13.6)	87 (16.6)	25 (2.7)	40 (3.2)
	30-54세	8 (2.4)	16 (3.0)	19 (2.1)	26 (2.1)
	55-64세	0 (0.1)	0 (0.0)	2 (0.3)	4 (0.3)
	65세이상	0 (0.0)	0 (0.0)	1 (0.1)	2 (0.2)
	소계	56 (16.1)	103 (19.7)	47 (5.2)	73 (5.7)
대졸이상	15-29세	98 (28.5)	176 (33.5)	19 (2.1)	23 (1.8)
	30-54세	39 (11.4)	61 (11.6)	48 (5.3)	66 (5.2)
	55-64세	1 (0.2)	1 (0.1)	34 (3.7)	52 (4.1)
	65세이상	0 (0.0)	0 (0.0)	12 (1.3)	33 (2.6)
	소계	138 (40.0)	238 (45.3)	113 (12.5)	174 (13.6)
전 체		345 (100.0)	525 (100.0)	907 (100.0)	1,277 (100.0)

주: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과 '취업준비' 임.

유휴는 '그냥 쉬' 임.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학력별로 살펴보면,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대졸 이상이 45.3%, 고졸 이하가 35.1%를 차지하고 있어 고학력자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반면 유휴 비경제활동인구는 고졸 이하에서 대단히 높은 수준인 80.7%를 보여 저학력자의 비중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추세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3년과 2006년을 비교해 보면, 유휴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 55세 이상 고령층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계층에서도 증가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대졸 이상 청년층에서 두드러진 반면, 고졸 이하의 경우 43.9%에서 35.1%로 큰 감소를 보여 학력별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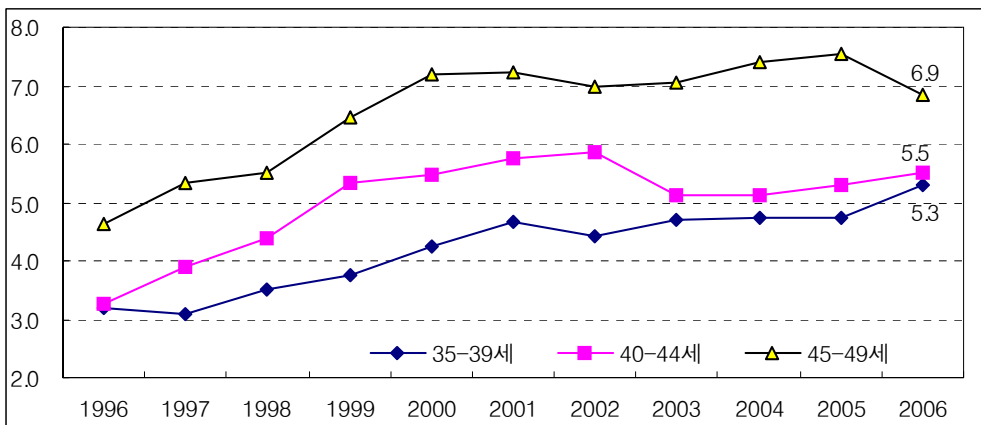
Ⅲ. 비경제활동인구 인구학적 분석

1. 중장년층

노동시장의 핵심노동계층이라 할 수 있는 중장년층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나오는 인구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에 35~44세에서는 3%, 45~49세에서는 4%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1997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남성 중년층 비경제활동률

(단위 : %)



주: 비경제활동률=비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이처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남성 중장년층 비경제활동의 사유를 크게 육아·가사, 재학·학업, 취업준비, 그냥 쉬 및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냥 쉬다는 유희인력의 규모가 가장 크며, 그 비중 또한 크게 증가했다(표 3 참조). 연령을 계층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 핵심노동계층인 30-54세의 유희 비경제활동인구는 2003년에서 2006년 사이 64천 명, 55-64세는 108천 명이 증가했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30~54세는 3.0%에서 3.5%로, 55~64세는 11.4%에서 15.5%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이 높은 중년층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쉬다는 유희인력이 증가했다는 것은 취업여건의 악화로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3> 비경제활동 사유를 고려한 중년 남성의 연령계층별 인구의 구성

(단위: 천 명, %)

		30~54세		55~64세	
		2003	2006	2003	2006
취업자		8,761 (91.4)	9,064 (90.4)	1,395 (70.9)	1,559 (72.6)
실업자		238 (2.5)	273 (2.7)	37 (1.9)	49 (2.3)
비경제활동인구	육아·가사	31 (0.3)	53 (0.5)	33 (1.7)	34 (1.6)
	재학·학업	13 (0.1)	17 (0.2)	0 (0.0)	1 (0.0)
	취업준비	53 (0.6)	79 (0.8)	3 (0.1)	2 (0.1)
	유희	289 (3.0)	353 (3.5)	225 (11.4)	333 (15.5)
	기타	201 (2.1)	183 (1.8)	277 (14.1)	169 (7.9)
	소 계	586 (6.1)	684 (6.8)	536 (27.2)	539 (25.1)

주: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과 '취업준비' 임.

유희는 '그냥 쉬' 임.

()안은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비경제활동상태의 중년 남성의 전직 기간 및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나타낸 것이 <표 4>이다. 남성 30~54세 유희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중년 남성의 비중이 61.4%에 이르며, 그 가운데 59.5%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해 그만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유희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가 일을 그만둔지 1년 미만이며, 또한 비자발적 이유라는 것은 이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기보다는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바로 불안정한 취업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4> 남성 30~54세 유휴 비경제활동인구의 전직 기간 및 사유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1년 미만	190 (65.8)	205 (63.5)	213 (61.6)	217 (61.4)
자발적	72 [37.7]	74 [35.9]	80 [37.6]	81 [37.6]
비자발적	98 [51.4]	113 [55.0]	128 [60.1]	129 [59.5]
분류불가	21 [10.9]	19 [9.1]	5 [2.3]	6 [2.9]
1년 이상	95 (32.7)	115 (35.5)	130 (37.7)	133 (37.6)
전직 없었음	4 (1.5)	3 (0.9)	2 (0.7)	3 (1.0)
전 체	289 (100.0)	323 (100.0)	346 (100.0)	353 (100.0)

주: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과 '취업준비' 임.

유휴는 '그냥 쉬' 임.

()안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는 1년 미만 전직인 유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2. 여성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증가하는 현상과 더불어 결혼 및 육아·가사문제로 인한 경력 단절과 여성 참가율 증대에 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인구의 50%에 육박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방대한 유희인력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또한 육아·가사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여성 인구의 30%를 넘으며 비경제활동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5 참조).

<표 5> 비경제활동 사유를 고려한 여성 인구의 구성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취업자		9,108 (47.4)	9,364 (48.3)	9,526 (48.4)	9,706 (48.8)
실업자		310 (1.6)	326 (1.7)	334 (1.7)	294 (1.5)
비경제활동인구	육아·가사	6,552 (34.1)	6,587 (33.9)	6,605 (33.6)	6,622 (33.3)
	재학·학업	1,845 (9.6)	1,757 (9.1)	1,744 (8.9)	1,824 (9.2)
	취업준비	152 (0.8)	168 (0.9)	203 (1.0)	231 (1.2)
	유휴	161 (0.8)	195 (1.0)	253 (1.3)	245 (1.2)
	기타	1,092 (5.7)	1,008 (5.2)	1,019 (5.2)	977 (4.9)
	소 계	9,803 (51.0)	9,716 (50.1)	9,823 (49.9)	9,898 (49.7)

주: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과 '취업준비' 임.

유휴는 '그냥 쉬' 임.

()안은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비록 매년 육아·가사의 사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무르는 비중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여성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003년 152천 명으로 여성 인구의 0.8%에 불과하였던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가 2006년 231천 명으로 증가해 1.2%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육아·가사에 몰려있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위해 핵심노동 계층을 학력별로 나누어 비경제활동 사유를 살펴보았다(표 6 참조). 중졸 이하를 제외한 계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여성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대졸 이상의 여성에서 육아·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여성 평균 수준보다 높음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고학력 여성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표 6> 30~54세 여성의 학력별 비경제활동 사유를 고려한 인구의 구성

(단위: 천 명, %)

		전 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2003	취업자	5,290 (56.6)	1,737 (64.0)	2,499 (54.5)	287 (52.2)	766 (51.0)
	실업자	124 (1.3)	34 (1.2)	64 (1.4)	9 (1.6)	18 (1.2)
	비경활	3,935 (42.1)	942 (34.7)	2,020 (44.1)	255 (46.3)	717 (47.8)
	육아가사	3,740 (40.0)	872 (32.2)	1,937 (42.3)	245 (44.5)	686 (45.7)
	통학	22 (0.2)	2 (0.1)	12 (0.3)	0 (0.0)	8 (0.5)
	취업준비	22 (0.2)	1 (0.0)	10 (0.2)	2 (0.4)	9 (0.6)
	그냥 쉬	48 (0.5)	19 (0.7)	20 (0.4)	3 (0.5)	7 (0.5)
	기타	102 (1.1)	48 (1.8)	42 (0.9)	5 (0.8)	7 (0.5)
2006	취업자	5,792 (59.1)	1,486 (65.1)	2,827 (57.3)	435 (56.0)	1,045 (58.0)
	실업자	117 (1.2)	28 (1.2)	63 (1.3)	12 (1.5)	14 (0.8)
	비경활	3,884 (39.7)	768 (33.7)	2,043 (41.4)	330 (42.5)	743 (41.2)
	육아가사	3,684 (37.6)	713 (31.3)	1,959 (39.7)	313 (40.2)	699 (38.8)
	통학	19 (0.2)	0 (0.0)	11 (0.2)	0 (0.0)	7 (0.4)
	취업준비	31 (0.3)	1 (0.0)	11 (0.2)	6 (0.7)	13 (0.7)
	그냥 쉬	68 (0.7)	17 (0.8)	33 (0.7)	7 (0.9)	11 (0.6)
	기타	82 (0.8)	36 (1.6)	30 (0.6)	5 (0.6)	11 (0.6)

주: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과 '취업준비' 임.

유휴는 '그냥 쉬' 임.

()안은 각 학력계층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가구 내에서 육아·가사의 이유로 비경제활동상태인 30~54세 여성이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의 고용상태와 평균임금을 살펴보자. 본 분석을 위해 가구 내의 지위가 가구주와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표 7>에 따르면, 육아·가사의 사유로 비경제활동상태인 여성 배우자의 92.3%가 취업상태이고, 이 중 54.0%가 상용직이며, 약 30% 정도가 자영업주의 상태이다. 반면 여성이 실업자인 경우 배우자의 86.3%가 취업상태이며, 이 중 44.8%가 상용직이고 17.2%가 실업의 상태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이 취업상태인 경우 배우자의 95.9%가 취업상태이지만 상용직은 38.7%에 불과하고 약 44%가 자영업주 상태인 것이다. 이는 육아·가사의 사유로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여성의 배우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여성의 배우자에 비해 취업 비중이나 상용직 비중에 비해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육아·가사 여성 비경제활동상태의 배우자의 평균임금은 261만 원인데 비해 여성 실업상태의 배우자의 임금은 203만 원, 여성 취업상태의 배우자의 임금은 225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가사 여성 비경제활동상태의 배우자의 임금이 취업 및 실업 여성 배우자의 평균임금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7> 경제활동 사유별 30~54세 여성 배우자의 고용상태 및 평균임금(2006)

(단위: 천 명, 만 원, %)

		육아·가사 비경제활동인구	실업	취업
취업자		3,229 (92.3)	58 (86.3)	3,946 (95.9)
상용		1,744 [54.0]	26 [44.8]	1,527 [38.7]
임시		329 [10.2]	5 [8.6]	419 [10.6]
일용		172 [5.3]	10 [17.2]	254 [6.4]
고용주		439 [13.6]	7 [12.1]	561 [14.2]
자영자		545 [16.9]	10 [17.2]	1,180 [29.9]
무급가족		0 [0.0]	0 [0.0]	5 [0.1]
실업자		69 (2.0)	6 (8.3)	66 (1.6)
비경제활동인구		199 (5.7)	4 (5.4)	102 (2.5)
전 체		3,497 (100.0)	67 (100.0)	4,113 (100.0)
평균 임금	취업자	261	203	225
	상용	292	239	263
	임시	170	209	149
	일용	123	108	119

주: ()안은 30~54세 여성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는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0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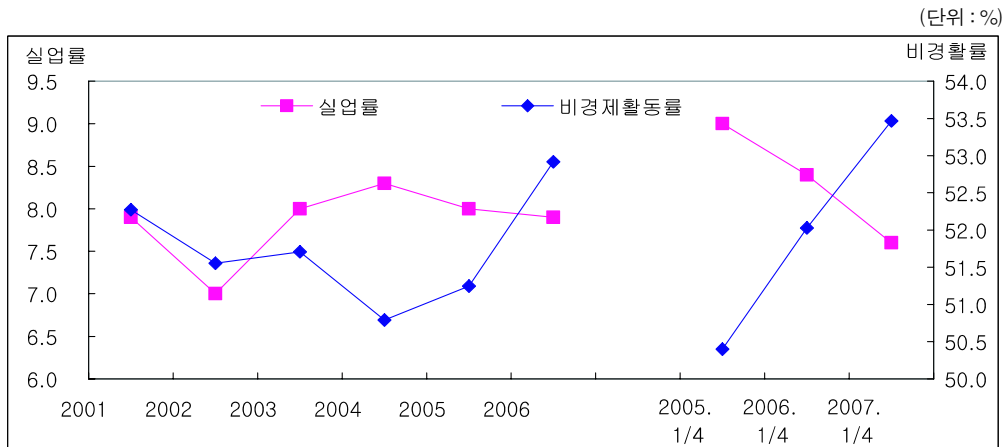
3. 청년층

최근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은 7%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특징이 있다면 실업자 감소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4 참조).

이처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를 사유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취업준비 및 재학·학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표 9 참조).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개인적인 취업준비 등의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이 청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2.6%에서 2006년 4.2%로 증가하였다. 또한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 학원 통학, 진학 준비 등의 ‘재학·학업 비경제활동’이 청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3년 37.3%에서 2006년 39.3%로 증가하였다. 반면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는 ‘유휴 비경제활동’은 2003년 2.2%에서 2005년 2.8%로 증가하였다가 2006년 2.6%로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바로 경제활동상태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노동시장적 특성 때문에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는 계층으로는 실업자 및 취업준비·유휴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취업애로층이라 할 수 있다. 2004년 이후 지속되는 실업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애로층의 비중은 2003년 8.6%에서 2006년 10.5%로 증가하였다. 이는 지표상의 실업률과 체감실업률간의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청

[그림 4] 청년층 실업률과 비경활률 추이



주 : 비경제활동률=비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8> 비경제활동 사유를 고려한 청년 인구의 구성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취업		4,606 (44.4)	4,578 (45.1)	4,450 (44.9)	4,270 (43.4)
실업(A)		401 (3.9)	412 (4.1)	387 (3.9)	364 (3.7)
비경제 활동인구	육아·가사	773 (7.5)	693 (6.8)	571 (5.8)	521 (5.3)
	재학·학업	3,872 (37.3)	3,704 (36.5)	3,701 (37.3)	3,865 (39.3)
	취업준비(B)	268 (2.6)	297 (2.9)	351 (3.5)	413 (4.2)
	유휴(C)	225 (2.2)	258 (2.5)	278 (2.8)	258 (2.6)
	기타	223 (2.2)	199 (2.0)	183 (1.8)	152 (1.5)
소 계		5,361 (51.7)	5,151 (50.8)	5,083 (51.2)	5,209 (52.9)
취업애로층(A+B+C)		893 (8.6)	966 (9.5)	1,016 (10.2)	1,035 (10.5)

주: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과 '취업준비' 임.

유휴는 '그냥 쉬' 임.

()안은 청년층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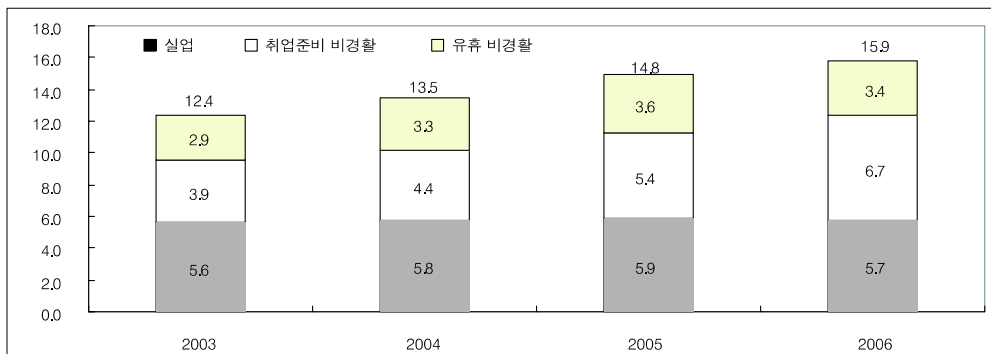
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장기화와 참여의 저하현상이 지속되어 노동시장의 활력을 둔화시킬 수 있으므로 실업률로 청년 노동시장을 판단하는데 신중함이 필요하다.

청년층의 경우 재학·학업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관계로 졸업과 중퇴로 학업을 마친 인구의 구성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업을 마친 청년층이야말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를 마친 청년층으로 한정할 경우 취업애로층 비중은 2003년 12.4%에서 2006년 15.9%로 크게 증가한다. 실업자 비중의 변화가 크게 보이지 않지만,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유휴 비경제활동인구가 소폭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결과이다(그림 5 참조).

학력간 구직행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고졸 이하, 전문대졸 및 대졸 이상으로 나

[그림 5] 학교를 마친 청년의 취업애로층 비중과 구성 차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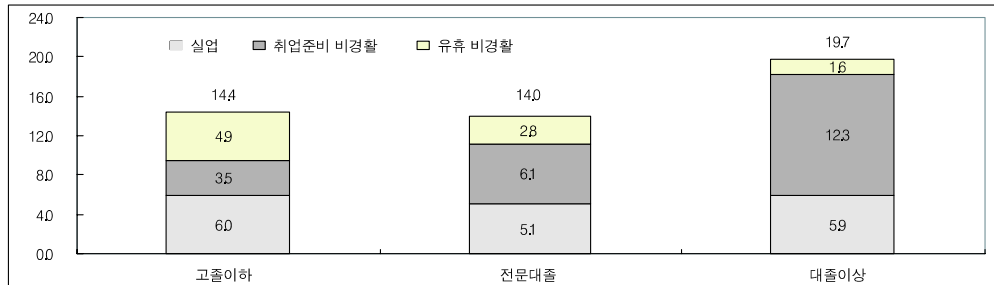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누어 분석을 하였다(그림 6 참조). 고졸 이하의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와 그냥 쉬는 유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은 반면, 대졸 이상의 경우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이 높아 좋은 일자리를 탐색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학교를 마친 청년의 학력별 취업애로층 비중과 구성(2006)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9> 학교를 마친 청년층의 학력별 취업애로층 구성

(단위 : 천 명, %)

		전 체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2003	취업자	3,876 (69.1)	1,930 (63.8)	1,002 (76.3)	944 (74.1)	
	실업자(A)	312 (5.6)	165 (5.5)	77 (5.8)	71 (5.6)	
	비경제활동인구	육아·가사	750 (13.4)	505 (16.7)	135 (10.3)	110 (8.6)
		재학·학업	166 (3.0)	141 (4.7)	11 (0.8)	14 (1.1)
		취업준비(B)	221 (3.9)	78 (2.6)	47 (3.6)	96 (7.6)
		유휴(C)	163 (2.9)	119 (3.9)	25 (1.9)	19 (1.5)
		기타	122 (2.2)	86 (2.9)	16 (1.2)	19 (1.5)
	소 계	5,610 (100.0)	3,024 (100.0)	1,313 (100.0)	1,273 (100.0)	
	취업애로층(A+B+C)	510 (12.4)	362 (12.0)	148 (11.3)	186 (14.6)	
	2006	취업자	3,528 (69.1)	1,411 (62.5)	1,088 (76.3)	1,029 (72.4)
실업자(A)		294 (5.7)	138 (6.1)	72 (5.1)	83 (5.9)	
비경제활동인구		육아·가사	505 (9.9)	301 (13.0)	120 (8.4)	84 (5.9)
		재학·학업	178 (3.5)	156 (6.8)	7 (0.5)	15 (1.1)
		취업준비(B)	344 (6.7)	82 (3.6)	87 (6.1)	174 (12.3)
		유휴(C)	175 (3.4)	113 (4.9)	40 (2.8)	22 (1.6)
		기타	83 (1.6)	58 (2.5)	112 (0.8)	14 (1.0)
소 계		5,105 (100.0)	2,258 (100.0)	1,426 (100.0)	1,421 (100.0)	
취업애로층(A+B+C)		812 (15.9)	334 (14.4)	200 (14.0)	280 (19.7)	

주 :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과 '취업준비' 임.

유휴는 '그냥 쉬' 임.

()안은 학업을 마친 청년층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전체적으로 학력과 관계없이 취업애로층의 비중이 증가하지만, 특히 대졸 이상이 다른 학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업애로층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즉, 저학력자에서는 유휴 비경제활동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고학력자에서는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특징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저학력자의 유휴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불안정한 일자리로의 취업과 반복적으로 취업과 비경제활동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에 노출이 된다고 보여지므로 이 계층에 관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IV. 결론

최근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의 동반하락과 동시에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는 노동시장적 특성으로 인한 구직활동의 포기 및 고학력화와 불안정한 일자리의 반복 등에 의한 노동력 유휴화의 문제가 담겨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는 취업준비의 사유와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다는 유휴 사유에 의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취업준비 사유에는 대졸 이상 청년층, 유휴 사유에는 남성 중장년층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육아·가사에 의한 높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구직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노동시장 참여의 저하현상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장기화와 고학력화로 인한 인력수급의 불일치, 고용구조 개선 및 창출효과의 약화 및 육아·가사를 가정의 책임으로 돌림 등에 의한 결과이다. 이 취업애로층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일자리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비정규-비경활’의 반복 위험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정책적 틀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KLI**